

오늘의 세계는 불안과 위기로 가득차있다. 악성비루스의 전파로 하여 산생된 보건위기, 방역위기는 수많은 다른 위기들을 연이어 산생시키고있으며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불신은 인류의 생활과 미래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고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후호의 동요나 불안, 위구도 찾아볼수 없다. 사람마다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회열에 차있다.

화성신화장조의 열풍속에 기적같이 솟구쳐오르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의 장쾌한 전경은 바로 그 신심, 그 확신을 백배해주는 격동의 시대의 산화물, 온 나라를 걱정과 흥분으로 설레게 하는 변이 나는 세월의 또 하나의 정경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작품의 발파폭음이 울린 때로부터 불과 수개월.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다. 건물골조공사가 연이어 계속되고 내외부벽체미장과 지대정리, 봉사망건설 등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자기의 특색있는 문화를 완연히 드러낸 멋쟁이거리,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장쾌한 《숲》을 이룬 화성지구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한히 격동시킨다.

사실 이곳 건설자들이 말하고 있는것처럼 모든것이 어렵고 간고하다. 더우기 돌발적인 방역위기는 공화국에 있어서 건국 이래 대동단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첫삽을 박던 지난 2월은 물론이고 3월, 4월에도 기초공조크리트리기가 불이 번쩍나게 다그쳐지고 살림집골조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키를 솟구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엄중한 비상방역상황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결사전의 분분초조가 흐르는 속에서도 단 하루, 한시간의 공백도 없이 공사는 계속 줄기차게 다그쳐진것이다.

과연 그 기적의 힘은 어디에

창조로 들끓는 사회주의조선의 축로-화성전역

있는가. 건설에 동원된 한 로력혁신자는 이렇게 피력하였다.

《작면한 예로와 난관은 말그대로 사상초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연포은실농장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숙원사업들을 계기일만에 손색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진정은 우리모두에게 지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숙원! 이 말의 참뜻을 새겨볼수록 자연의 대제양의 흔적을 말씀하시기도 사회주의신경으로 훌륭히 일떠선 금천구 강북리를 찾았으셨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렁치 않게 언저는 이번

에 폭우와 강풍피해를 입었던 이곳 강북리를 새로 일떠세웠는데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물어보시고나서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우리 당의 숙원을 또 하나 풀어준 인민군인들에게 감사할 줄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의 숙원, 그것은 인민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에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류정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찾으시어서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은 자신께서 오래 전부터 주상해온것이며 꼭 하고싶었던 일이었다고 거듭 되뇌이셨고 새로 일떠선 중형남새은실농장을 돌아보시면서는 앞으로 각 도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은실

농장을 하나씩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절절히 이르시었다.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지금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들의 순박하고 기대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면 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칠 각오와 결심이 더욱 굳어지곤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의 무게를, 일군들은 인민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늘 생각해 보며 오직 인민들이 좋아하는 일, 인민들이 바라는 일만 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간곡한 당부에 어린 위민헌신의 숭고한 세계를, 우리 인민의 하느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

사 온몸이 젖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켜질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의 투철한 인민관의 열도를...

진정 인민들에게 더 좋은것, 더 훌륭한것을 주기 위해 늘 마음쓰시며 그 길에서 천만교생을 달게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 뜨거운 진정이야말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펼쳐나신 전체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무비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투쟁의 활력소, 전진의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물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

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신 소식을 접하였을 때 온 화성지구가 눈물

의 바다를 펼치었다. 《인민을 위 하시는 우리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진정에 우리모두는 불사신마냥 일어났습니다.》

《인민에게 닥쳐오는 불행울 함부로 막아서시는 위대한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생각에 자리를 차고 건설장으로 달려나간 우리들입니다.》

이는 화성지구 건설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비상한 속도로 대규모의 현대적인 은실농장이 일떠서는 런토지구, 날마다 시간마다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변모되는 검덕지구, 아니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고조되고있는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울려나온 격경

의 토로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떠받들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하루가 몰라보게 진척되고있다.

건설장에 힘차게 울려 퍼지는 화성전진, 화성신동의 북소리, 곳곳에 나붙은 《당이 정해준 시간대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시간이여 따라라》, 《걷는자는 비켜서라》 등의 정신이 번쩍 드는 힘있는 전투호수들은 평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어나가려는 이곳 건설자들의 드높은 충정심의 뜨거운 분출이다.

사회주의조선은 이렇게 전진하고있다.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순간의 멈춤없이 솟구쳐오르는 이 기적이야말로 위대한 아버지의 현명한 평도따라 평평한 미래를 향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축도이다.

한영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공사 진행(2022년 2월 12일)



전진과 비약의 활로를 밝히려는 빛나는 예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독창적이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공화국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걸출한 평도자이시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8기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일군 특별강습회를 놓고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불멸의 세시대의 혁명적당건설대강령을 마련하시고 정력적인 평도로 이번 특별강습회를 전당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빛내어주시 탁월한 사상리론가, 걸출한 평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돌이켜보면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급변하는 정세추이를 깊이 연구분석하시 가장 정확하고 정당한 로선들을 제시하시어 사회주의건설전면에서 비약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을 밝힌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진회의로부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고 금후 대미대응방향이 토의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전인민적추진군을 가속화하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된 조선로동당 제2차 조급당비서대회, 건국이래의 대동단이라고 말할수 있는 돌발적인 방역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비상방역사업에서 철저히 견지해야 할 원칙과 과업들을 밝혀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와 올해를 혁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이 가속화되고있는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진회의 확대회의.

이뿐이 아니다. 관건적인 당면한 국방건설업무를 확정하며 당의 군사 로선과 주요국방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와 당의 당면활동과 당건설에서 나서는 주요과업들이 제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승리와 성공의 진로를 뚜렷이 명시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해안의 선견지명은 그대로 만사람의 가슴가슴을 찬란한 래일에 대한 신심과 끝없는 희망으로 차넘치게 하고있으며 거대한 사변을 안아오는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올해에 극조속속미사일시험발사,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 철도기동미사일련대의 점멸사격훈련, 두차례의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국제적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조국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에는 회한한 대건축군을 이룬 송화거리가 완공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창조물인 평양의 새 경관인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서는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지금 화성전역과 연포은실농장건설이 하루가 다르게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으며 지방은 지방대로 농촌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이 계획대로 진척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소비품생산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이 땅에 건국이래의 대동단이라고 말할수 있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지만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전진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다.

하기에 세계인론들도 《김정은평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적통찰력, 비상한 정치적안목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치의 동란속에서 용의주도한 결단을 내릴줄 아는 로숙한 정치가이시다.》, 《김정은총비서께서 비상한 결단과 예리한 통찰력, 능란한 외교술로 현 정치정세와 대외관계를 능숙하게 주도해 나가신다.》고 평가하고있다.

진정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특출한 평도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도전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 헤치시며 오직 승리에 승리만을 이룩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공화국은 오늘날도 래일도 언제나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만을 창조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작은 목선을 타시고

주제101(2012)년 8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7hp의 작은 목선을 타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를 찾으신다. 충격적인 이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인민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한생 바다에서 사는 배군들도 파도사나운 날에는 섣뜻 띄우지 못하는 그런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검푸른 날바다길을 헤쳐가신것이다. 언제나 경애하는 그이의 안녕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결코 험난한 조국수호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고계시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에는 오로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 후대들을 억척으로 지키겠다는 결사의 각오가 세차게 끓어치고있었다.

조강도현지지도강행군

나를 리놓으시었다. 과연 이 세상 어느 평도자가 이렇듯 초인간적인 정력과 강인한 의지로 력사가 알지 못하는 절인미담의 초행길을 헤쳐간적 있던 말인가. 함으로 밀사부부의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시절 가림이 없이 하늘과 땅, 바다길로 위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헌신의 길과 더불어 이 땅에선 인민의 안녕과 행복, 후손만대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가 끊이지 꽃피어나는것이다. 본사기자

역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영예군인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

세계전쟁사에는 공화국에서처럼 전쟁시기 부상당한 군인들을 영예군인으로 내세워주고 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치료도 받고 마음껏 공부도 할수 있게 각별한 정을 아낌없이 부어준 례가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예군인들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제39(1950)년 8월 19일 내각결정 제151호로 영예군인들에게 국가정기보조금을 주도록 하시고 그해 12월 11일에는 내각결정 제182호로 영예군인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도록 해주시었다. 또한 주제40(1951)년 2월 6일 군사위원회지시 제82호로 제대되는 상병자들에게 로동능력과 회담에 따라 직업을 보장해주고 각급 간부양성학교, 기술학교, 전문학교, 대학들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능력을 상실한 무의무탁영예군인들도 영예군인보양소들에 보내어 그들의 생활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맡아 돌보아주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하여 각지의 산수수려하고 경치아름다운 곳들에 영예군인보양소들이 일떠서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돌보아주었으며 해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보약재들이 영예군인들에게 안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40(1951)년 3월 31일 영예군인들이 자기의 능력과 건강상태에 알맞는 직종에서 일할수 있도록 영예군인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내각회의도 소집하시고 이를 위한 밑에 따라 직업을 보장해주고 각급 간부양성학교, 기술학교, 전문학교, 대학들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시었다. 그리하여 주제40(1951)년 4월 13일 내각결정 제254호 《조국

해방전쟁에서 불구로 된 인민군 장병 및 빨치산들을 위한 영예군인학교설치에 관하여》가 채택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주제40(1951)년 6월말까지 평안북도, 함경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5개 도에 영예군인공립학교, 영예군인농업학교, 영예군인통계부기학교가 나오게 되었으며 수많은 영예군인들이 여가서 배움의 나라를 펼칠수 있었다. 적자간의 피어린 결전에서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평지도 아닌 전시에 국가가 책임지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돌보아준 전철과도 같은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인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리로 높이 모신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감동적인 사실이었다. 본사기자 황금숙

